

## 예수의 첫 활동 (가르침, 축귀, 치유)

(마가복음 1:21-34)

(개역개정)

<sup>21</sup>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sup>22</sup> 모든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sup>23</sup>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sup>24</sup>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sup>25</sup>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sup>26</sup>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sup>27</sup>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sup>28</sup>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sup>29</sup>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sup>30</sup>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sup>31</sup>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sup>32</sup>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sup>33</sup>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sup>34</sup>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번역)

<sup>21</sup>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sup>22</sup>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sup>23</sup> 그 때에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sup>24</sup>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sup>25</sup>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sup>26</sup>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sup>27</sup>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sup>28</sup>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sup>29</sup>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sup>30</sup>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sup>31</sup>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종을 들었다. <sup>32</sup> 해가 저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sup>33</sup>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sup>34</sup>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1:14-15),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들을 부른 뒤에(1:16-20),  
이제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준다(1:21-34).

이 단락(1:21-34)의 구조

- (1) 1:21-22 (가르침)
- (2) 1:23-28 (축귀)
- (3) 1:29-31 (치유)
- (4) 1:32-34 (축귀 & 치유)

---

## 21절

### “가버나움”

갈릴리 서북쪽 해변가에 위치한 마을 - 예수가 살던 마을! (cf. 마 4:13; 9:1 등)  
예수의 활동의 중심지(거점) - 예수의 제2의 고향

### “안식일에”

예수 일행이 가버나움에 들어간 때는 안식일이었다.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

“옛새 동안은 일을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다.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날은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지킬 주의 안식일이다.”(레 23:3 참고)

### “회당”

오늘날 가버나움 회당은 뼈대만 남아있다.



두 가지 색의 돌로 지어진 뼈대

- 1) 검은색(현무암): 1세기 - 기초석 (예수 시대의 것)
- 2) 흰색(석회암): 4세기 - 새로 지어진 회당

예수 시대에도 큰 규모의 회당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기초석의 규모로 추정)

회당의 기능(역할)

유대인들의 회합 장소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



유대인들의 생활 중심지 (성전에서 먼 지역에서는 회당이 중심지)

특히, 기원후 70년 성전파괴 이후 회당은 유대교의 중심이 된다.

## 22절

“그의 가르침” (cf. 예수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21절))

(회당 예배의 형태를 정확히 재구성할 수는 없지만,)

예배 순서 중에는 성경(토라, 예언서)을 읽고,

본문의 의미를 설명하는 순서가 있었을 것이다.

예수는 바로 이때 ‘강론’을 한 것으로 보도된다.

무엇을 가르쳤는가? - 알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혹시,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의 반응에서 유추할 수 있을까?)

1:24 → 예수의 메시지는 사탄의 세력과의 대결?)

“놀랐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 → 넋을 잃고 놀람(수동태)

동사 ἐκπλήσσω는 ‘압도될 정도로 놀라게 하다’를 의미(6:2; 7:37; 10:26; 11:18)

사람들은 왜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는가?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

율법학자(개역의 서기관)들은 토라(모세의 율법)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학자(전문가)들

마가복음에서 이들은 악역을 수행한다. ‘예수의 적대자들’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예수의 가르침에 “권위”(ἐξουσία)가 있었기 때문

## 23절

공간적 배경은 여전히 “회당”

“악한 귀신 들린 사람”

↓

πνεῦμα ἀκάθαρτον (더러운 귀신, cf. 5:2) ⇔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cf. 1:8, 10, 12)

↑

우주적 싸움

## 24절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Τί ἡμῖν καὶ σοί;)

↓(문자적으로)

What between you and us?

↓(의미)

1) 당신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2) 당신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무엇이나?

↓

1인칭 복수

(더러운 귀신은 사탄의 세력의 대표)

“나사렛 사람 예수님”

(Ἰησοῦ Ναζαρηνέ: 호격) → 나사렛 사람 예수야! (존경의 표현이 아니다.)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ἤλθες ἀπολέσαι ἡμᾶς;)

↓(문자적으로)

우리를 없애려고 왔느냐?

(1인칭 복수)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οἶδά σε τίς εἶ.)

(1인칭 단수)

↓(문자적으로)

I know who you are.

↓

상대방의 정체성을 알고 있다는 선언

신앙고백이 아니라 “공격”!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 (ὁ ἅγιος τοῦ θεοῦ)

문자적: “하나님의 거룩한 자”

거룩한 존재 =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의 편에 서있는 것은 거룩하다.

“더러운 귀신”(1:23)과 대조를 이룬다.

cf. 베드로의 고백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8:29)

귀신의 이 선언은 신앙고백이 아니다.

자신들의 세계(더러움)와 맞서는 다른 세계(거룩함)에 속해있는 예수에 대한 인식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선언으로 인해,

마가복음서 독자들은 예수의 정체를 확인하게 된다.

## 25절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예수의 의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Φιμώθητι καὶ ἔξελθε ἐξ αὐτοῦ)

문자적: “조용히 하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특별한 주문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힘들게 축귀하던 당시의 주술가들과는 달리

예수는 말 한 마디로 간단히 악령을 제압한다.



예수의 놀라운 능력(권위)

## 26절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악령의 저항

그러나 예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다. → “떠나갔다.”

## 27절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영적인 세력마저도 제압하는 예수의 능력에 대한 감탄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 (διδασχὴ καὶνὴ κατ’ ἐξουσίαν)

축귀가 왜 “가르침”(διδασχὴ)인가?

## 28절

회당에서의 가르침과 축귀 사건으로 예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퍼지기 시작한다.

---

## 29절

“시몬과 안드레의 집”

예수 일행은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는데,

공간적 배경은 여전히 가버나움이다(cf. 21절).

→ 예수의 거주지도 가버나움이었고, 베드로의 집도 가버나움에 있었다.

베드로(시몬)와 안드레는

예수의 부름에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1:18)고 했는데,

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가? → 31절에 이유가 나온다.

## 30절

“시몬의 장모”

베드로는 예수를 따르기 전에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

(당시 베드로는 자신이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는 가장)

“열병”

구체적인 병명은 알 수 없으나, 열을 동반한 질환

회당에서의 사건과는 달리, 귀신에 대한 언급이 없다.

“사람들은 그 사정을(περὶ αὐτῆς) 예수께 말씀드렸다.”

↓

그 여자, 곧 장모에 대하여

목적은 분명하다. → 고쳐달라는 요구

## 31절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예수와의 접촉만으로도 병이 낫는다(“열병이 떠나고”). 예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낸다.

“시중을 들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 διακονέω에서 파생된 명사가 디아코니아(διακονία)이다.



섬김, 봉사

cf. 롬 12:7

※ 장모의 상태의 변화 ※

(1) 누워있다(죽음).



(2) 일어나다(부활, 소생).



(3) 시중을 들다(섬김의 행동): 디아코니아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cf. 10:45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

### 32-33절

“해가 저서 날이 저물 때”

시간적 배경은 저녁이다. 하루의 마무리

(즉, 가르침과 축귀와 치유는 하루에 일어난 사건)

그런데 하루가 마무리되는 시간에도 예수의 사역은 멈추지 않는다.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

하루를 마감해야 하는 시간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에게 도움을 청한다.

“온 동네”가 예수가 머무는 집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의 영향력을 드러낸다.

### 34절

마가는 예수의 사역을 “치유”와 “축귀”로 요약한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cf. 1:25